

(청와대 대통령 담화문)

이라크 전쟁 발발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동영상[3/20] [2003-03-2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對이라크 군사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는 조금 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번 행동은 이라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라크 문제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반전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에도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여론과 함께 무엇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바람직한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그리고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번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전쟁으로 발생하는 난민에 대한 구호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라크 주변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에도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전후 이라크의 복구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함께 건설공병과 의무부대의 파견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태로 인해 당분간 세계경제는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경제적·안보적으로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북핵 문제까지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중대한 국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비상대책을 세우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각 군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테러 가능성 등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교민과 주재원들의 안전과 보호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단기의 단계적인 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해나갈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유가 급등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강구해두고 있습니다. 수출과 물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대책도 취해나갈 것입니다. 사회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전쟁이 북핵 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미리 예견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만반의 대책을 세워두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생업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어려울수록 더욱 힘을 모으는 국민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거세지만 우리는 능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합시다.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 여러분의 안전한 삶을 지켜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과의 통화 /13] [2003-03-14]

○ 송경희 대변인은 오늘(3월 13일) 저녁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밤 9시 35분부터 15분 동안 부시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통화했다.

▲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지지와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이끌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라크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부시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앞으로도 핵심적인 초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양 정상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국간에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외교적 노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 나가자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 또 부시 대통령은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방미 초청 의사를 표명했으며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시대통령 :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를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린다. 정권교체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점 역시 축하드린다.

○ 노 대통령 : 감사하다. 지난 12월 대통령 당선 직후 통화한 후 오늘 다시 통화하게 돼서 기쁘다. 또 본인의 취임식 때 파월 국무장관을 포함한 고위급대표단을 보내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부시 대통령님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및 국제테러방지를 위한 지도력을 항상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한다.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을 존중한다는 정신 하에 이라크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 부시 대통령 : 감사하다. 지금 한미동맹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한미동맹을 앞으로도 강력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다. 노 대통령님도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정책에 있어서 앞으로도 핵심적인 초석이 될 것이다.

○ 노 대통령 : 그 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동안 양국간에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이견이 보도

되기도 했으나 그 동안 여러 대화를 통해 한미간 정책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위한 양국의 노력, 특히 미국의 노력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동맹정신에 따라 미리 상의하고 양국간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 합니다.

○ 부시 대통령 : 좋은 소식이다. 본인은 대통령님께서 편리한 시간에 워싱턴에 오셔서 제 집무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시기를 희망한다. 오셔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노 대통령 : 저도 가능한 한 빨리 각하를 방문하여 허심탄회하게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한미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할 수 있고 북한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다. 하루빨리 미국을 방문하여 가슴을 열고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바란다.

○ 부시 대통령 :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해 일부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나, 미국의 정책기조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님의 방미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훌륭한 방문이 될 것을 확신한다. 오늘 제 전화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대통령님의 우정에도 감사하다. 행운을 기원한다.

○ 노 대통령 :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며 만나서 대화를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2003년 3월 13일

청와대대변인실

[중앙일보] 2003-03-14 () A01면 583자

한국, 이라크戰 미국입장 공개 지지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선준영(宣峻英) 주 유엔대표부 대사는 지난 12일(한국시간)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이라크는 무장해제를 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가 통일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이라크에 전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宣대사는 특히 "이라크가 지난 12년간 안보리가 제시한 결의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의 사찰활동이 무기한 계속되는 안되며 이라크의 무장해제에 대한 명확한 마감시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宣대사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우리 정부가 이라크 문제와 관련, 안보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이라크전이 발발할 경우 1개대대 규모의 건설공병부대를 파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라크전과 관련한 지원대책이 논의됐다"며 "군사분야에서는 개전상황에 따라 건설공병부대 파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철하·오영환 기자<chlee@joongang.co.kr>

[경향신문] 2003-03-13 () 10면 1231자

美·英 유엔없이 전쟁 초강경 - 부시·럼즈펠드 독자침공 가능 거듭강조

일부 안보리 회원국들이 한달 또는 45일간의 이라크 무장해제 시한연장을 원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를 거부하며 표결도 이번주말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안보리 승인뿐만 아니라 영국의 참여 없이도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앤서니 폴리아셔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외교면에서 (협상)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번주말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미국 관리는 미국은 결의안 통과 이후 7~10일의 시한만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마엘 가스파 마틴즈 앙골라 유엔 대사는 "7일이나 10일은 너무 짧다. 우리는 이미 요구한대로 45일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카메룬, 칠레, 기니, 멕시코, 파키스탄 등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른 안보리 국가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미 걸프지역에 병력을 배치한 영국이 여론에 밀려 참전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전쟁계획도 이미 세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주도할 이라크 전쟁에서 "영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영국 관리들은 이에 대해 이라크와 관련한 약속을 지킬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뒤늦게 "무력사용 결정을 내릴 경우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중대한 군사적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자세를 누그러뜨렸다.

부시 미 대통령은 안보리가 무력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를 '부적절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 안보리 승인없는 단독 침공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는 "우리의 안보가 관련됐을 때 행동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데는 유엔의 승인이 필요없다"고 선언했다.

한편 116개 개도국으로 구성된 비동맹운동(NAM)의 요청으로 11일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는 28개국 대표가 참석해 이라크문제와 관련한 토론을 벌였다. 호주가 유일하게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반전과 사찰연장을 주장했고 이라크에 대해서는 무장 해제를 촉구했다.

이라크는 전쟁에 대비해 바그다드 시가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랍어 위성방송인 알 자지라는 지난 8일 아랍계 자원자들이 바그다드 북동쪽 24km 지점에 위치한 한 캠프에서 시가전 훈련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원자들은 알 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살 공격을 의미하는 '순교'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휴 기자songhue@kyunghyang.com